

국토정책 Brief

KRIHS ISSUE PAPER



KRIHS POLICY BRIEF • No. 735

발행처 | 국토연구원 • 발행인 | 강현수 • www.krihs.re.kr

혁신도시-지역대학 연계, 실태와 활성화 방안

서연미 연구위원, 김은란 연구위원, 조은주 연구원

요약

- 1 정부는 혁신도시별 특화발전을 위해 혁신도시와 지역대학을 연계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 2 혁신도시-지역대학 연계는 이전(移轉) 공공기관과 기업의 수요맞춤형 인재를 양성·공급하는 정책 위주로 추진되고 있는데, 아직 도입 초기단계임
- 3 혁신도시 발전을 위한 대학의 역할 정립과 연계 활성화 전략은 미흡한 실정임
- 4 대학은 교육, 연구, 사회봉사, 지역사회 소비주체 등 다양한 역할을 하는 만큼 혁신도시 발전을 위한 대학의 역할 정립과 연계 활성화 전략이 필요

정책방안

- ① (혁신도시-지역대학 간 연계사업 추진을 위한 로드맵 수립) 초기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혁신도시-지역대학 연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이전 공공기관-지자체-대학 간의 협의를 통한 로드맵을 수립하고 순차적으로 사업 확대
- ② (혁신도시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한 지역대학 역할 제고) 지역대학 - 이전 공공기관 연계 강화를 위해 학과의 교육과정 개편, 융·복합 전공과 트랙형 교육과정 개설 등 교육의 질을 강화하고 맞춤형 인력공급 확대
- ③ (혁신도시 특화발전을 위한 기업과 지역대학 간 연계체계 구축) 이전 공공기관과 입주기업의 특화발전 분야를 고려한 산학협력 연계사업 구상·활성화
- ④ (혁신도시-지역대학 연계 증진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이전 공공기관, 입주기업, 지역대학 간 연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연계사업의 종합적인 관리와 기관 간 연계를 위한 시스템 구축
-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를 산·학·연 교류협력 및 창업보육 등을 위한 거점공간으로 건립·운영

1. 혁신도시-지역대학 연계정책 도입배경

정부는 혁신도시별 특화발전을 위해 혁신도시와 지역대학을 연계하는 전략을 추진 중

-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신(新)성장거점 육성을 목표로 하는 시존2 정책*은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대학, 혁신도시 입주기업 등을 정책대상으로 설정

* 시존1 정책은 공공기관 이전 중심의 수도권 집중 완화와 자립형 지방화 추진에 중점

혁신도시-지역대학 연계는 이전 공공기관과 기업의 수요맞춤형 인재를 양성·공급하는 정책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아직 도입 초기단계에 머무르고 있음

-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혁신도시 내 대학교 입주규제 완화, 지자체 - 이전 공공기관 - 지역대학 협력클러스터 조성(지자체 연계 컨소시엄을 통한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등을 시행 중

혁신도시 발전을 위한 대학의 역할 정립과 연계 활성화 전략에 대한 논의 부족

- 대학은 교육, 연구, 사회봉사, 지역사회 소비주체 등 다양한 역할을 하는 만큼, 혁신도시 발전을 위한 대학의 역할 정립과 연계 활성화 전략 필요

2

2. 지역대학과 혁신도시 관련 정책

지역대학 역량 강화

정부는 지역대학의 자율성 강화와 역량 제고를 위해 기존 대학 재정지원사업의 구조를 3개 유형으로 개편*

* 개편된 대학 재정지원사업은 3개 유형(국립대학, 일반재정 지원, 특수목적 지원)과 4개 사업(국립대학 육성, 대학혁신 지원, 산학협력, 연구)으로 구성

- (국립대학 육성) 국립대학의 공적 역할 강화와 지역 강점 분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 추진
 - 국립대학의 지역 내 교육·연구·혁신거점 역할을 확대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 상생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
- (일반재정 지원)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결과를 바탕으로 권역별 균형을 고려한 맞춤형 대학 정책 추진
- (특수목적 지원) 대학의 핵심기능인 연구·산학협력의 역량 강화를 위해 수요 맞춤형 인력양성과 신기술 연구개발 관련 정책 추진
 -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Leaders in INdustry-university Cooperatrion: LINC+) 선정과 연구지원 (Brain Korea 21: BK21+)으로 구분

그림 1 대학 재정 지원사업 재구조화



출처: 교육부 2018, 2.

3

지역 내 대학과 산업의 동반성장 지원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지역대학과 지역사회의 동반성장 지원을 목적으로 추진

- 2012년부터 교육부에서 시행 중인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을 사회맞춤형 학과 활성화 사업과 융합·확대해 추진
- 대학별 특성에 맞는 상향식 모델 발굴을 통해 산학협력 분야의 다양성을 구축할 방안을 모색하고, 관련 성과를 지역사회로 확대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

(4차 산업혁명 혁신 선도대학사업) 4차 산업혁명 유망 신산업 분야에 대응하는 융합지식과 4C* 능력을 갖춘 문제해결형 인재양성을 위한 대학 내 교육 과정·환경 혁신 추진에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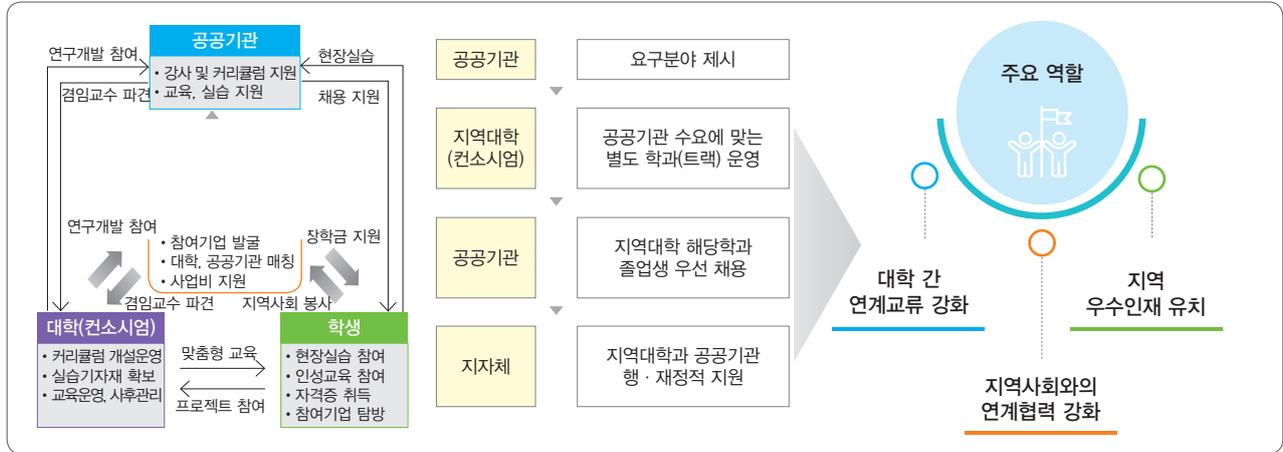
* 4C는 Creativity(창의적 사고력), Critical thinking(비판적 사고력), Communication(소통능력), Collaboration(협업능력)

지역인재 취업 지원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대학과 지역사회가 상생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4년부터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

- 2018년부터는 성과확산 극대화를 위해 지자체와 공공기관까지 참여하는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2유형)을 시범 실시

그림 2 지역대학-지자체-공공기관 연계 클러스터 운영모형



출처: 지역발전위원회 2018, 10.

혁신도시발전계획에서의 대학 관련 정책

(개방형 연구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개방형 연구실, 즉 ‘오픈랩’ 정책을 추진

- 오픈랩에서 시제품 생산과 디자인 팩토리, 테스트베드 연구 시설·장비, 창업·생산 공간 등을 조성

(산학융합지구와 산업단지 내 캠퍼스) 혁신도시와 인근 산업단지에 대학캠퍼스·연구소 등이 입지할 수 있는 산학융합지구를 지정해 ‘공동 연구개발(R&D) 활성화 – 우수인력 양성 – 취업’이 연계되는 선순환체계 구축

(오픈캠퍼스) 공공기관 수요에 부합하는 교과과정 등 맞춤형 교육제공을 통해 지역 우수인재를 공급하고, 채용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운영 선도기관의 모범사례 등을 반영해 점진적으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교육과정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오픈캠퍼스 운영이 확대될 예정

(기업연계형 장기현장실습제도) 대학교 교과과정 일부를 기업 현장실습을 거쳐 이수하도록 하는 IPP(Industry Professional Practice) 제도 실시

(일·학습 병행제) 기관에서 요구하는 전공기술과 직무능력을 교육받은 후, 7개월간 해당 기관에서 근무하며 실무능력을 쌓는 제도 실시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2015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상,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신설

-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2012년 2.8% → 2018년 23.3% → 2020년 계획 24% → 2021년 계획 27%)

그림 3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주요 내용



출처: 국토연구원 2019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재작성.

3. 혁신도시-지역대학 간 연계사업 현황

10개 혁신도시별 발전계획 중 대학을 포함하는 127개 사업 선별분석

(혁신도시 내 지역대학의 연계대상) 지역대학은 혁신도시 내 이전 공공기관과 연계된 사업에 주로 참여하고 있으며, 연합대학, 지역대학 공동캠퍼스, 산학연클러스터 캠퍼스, 산학융합지구 등을 조성해 입주

- 부산·울산·전북·제주 혁신도시의 경우 기업과 지역 내 대학이 연계된 사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 1 혁신도시 내 지역대학의 연계대상

(단위: 개, %)

혁신도시명	가능한 연계대상			부지(용지)	합계
	이전 공공기관	기업	주민		
부산	16 (100.0)	0 (0.0)	0 (0.0)	0 (0.0)	16 (100.0)
대구	8 (53.3)	5 (33.3)	1 (6.7)	2 (13.3)	15 (100.0)
광주·전남	9 (75.0)	2 (16.7)	0 (0.0)	8 (66.7)	12 (100.0)
울산	6 (100.0)	0 (0.0)	0 (0.0)	0 (0.0)	18 (100.0)
강원	17 (94.4)	6 (33.3)	2 (11.1)	1 (5.6)	8 (100.0)
충북	7 (77.8)	1 (11.1)	0 (0.0)	1 (11.1)	8 (100.0)
전북	7 (100.0)	0 (0.0)	0 (0.0)	1 (14.3)	7 (100.0)
경북	14 (82.4)	2 (11.8)	2 (11.8)	2 (11.8)	17 (100.0)
경남	13 (86.7)	3 (20.0)	0 (0.0)	2 (13.3)	15 (100.0)
제주	11 (91.7)	0 (0.0)	0 (0.0)	0 (0.0)	12 (100.0)
합계	106 (83.5)	19 (15.0)	5 (3.9)	17 (13.4)	127 (100.0)

주: 복수를 대상으로 연계 가능하므로 비율의 합은 100을 초과할 수 있음.

출처: 혁신도시별 발전계획을 바탕으로 저자 재작성.

(혁신도시-지역대학 연계 목적) 지역대학은 혁신도시 내 이전 공공기관과 기업을 위한 인재양성을 위해 혁신도시와 연계

- 연계 목적 중 인재양성이 총 63.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

표 2 혁신도시별 지역대학 연계사업의 목적

혁신도시명	인재양성	산학협력	사회봉사(지역문제 해결)	합계
부산	13 (81.3)	2 (12.5)	1 (6.3)	16 (100.0)
대구	8 (53.3)	7 (46.7)	0 (0.0)	15 (100.0)
광주·전남	4 (33.3)	8 (66.7)	0 (0.0)	12 (100.0)
울산	4 (66.7)	2 (33.3)	0 (0.0)	6 (100.0)
강원	8 (44.4)	5 (27.8)	5 (27.8)	18 (100.0)
충북	7 (77.8)	2 (22.2)	0 (0.0)	9 (100.0)
전북	5 (71.4)	2 (28.6)	0 (0.0)	7 (100.0)
경북	11 (64.7)	6 (35.3)	0 (0.0)	17 (100.0)
경남	12 (80.0)	3 (20.0)	0 (0.0)	15 (100.0)
제주	9 (75.0)	2 (16.7)	1 (8.3)	12 (100.0)
합계	81 (63.8)	39 (30.7)	7 (5.5)	127 (100.0)

출처: 혁신도시별 발전계획을 바탕으로 저자 재작성.

(혁신도시와 연계하는 대학 내 주체) 혁신도시 내 이전 공공기관과 기업 등과 연계해 추진되는 사업에 대학이 참여하는 경우, 대학 재학생이 가장 중요한 주체로 나타남

- 혁신도시 관련 사업에 대학이 참여하는 경우 혁신도시가 아닌 지역대학 내 부지를 활용하는 경우도 존재

표 3 혁신도시 관련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내 주체 및 부지활용 여부

혁신도시명	대학 내 주체				시설(부지)	합계
	교수	학생	산학협력단	대학행정부서		
부산	4 25.0	11 68.8	4 25.0	0 0.0	0 0.0	16 100.0
대구	2 13.3	7 46.7	7 46.7	0 0.0	0 0.0	15 100.0
광주·전남	2 16.7	3 25.0	8 66.7	1 8.3	0 0.0	12 100.0
울산	2 33.3	3 50.0	2 33.3	1 16.7	0 0.0	6 100.0
강원	3 16.7	7 38.9	9 50.0	6 33.3	2 11.1	18 100.0
충북	0 0.0	7 77.8	2 22.2	4 44.4	0 0.0	9 100.0
전북	1 14.3	5 71.4	2 28.6	2 28.6	0 0.0	7 100.0
경북	4 23.5	8 47.1	6 35.3	1 5.9	0 0.0	17 100.0
경남	4 26.7	8 53.3	2 13.3	6 40.0	0 0.0	15 100.0
제주	3 25.0	7 58.3	4 33.3	5 41.7	1 8.3	12 100.0
합계	25 19.7	66 52.0	45 35.4	26 20.5	3 2.4	127 100.0

주: 복수를 대상으로 연계 가능하므로 비율의 합은 100을 초과할 수 있음.

출처: 혁신도시별 발전계획을 바탕으로 저자 재작성.

(혁신도시-지역대학 연계를 위한 정책 활용) 혁신도시 내 이전 공공기관과 기업을 위한 인재양성 제도·정책으로 오픈캠퍼스 사업을 가장 많이 활용

-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은 7개 혁신도시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기존 대학의 일부 기능을 혁신도시에 유치하거나 신규로 대학·대학원 설립을 추진하기도 함

표 4 혁신도시별 지역대학 연계 정책 활용(계획) 현황

혁신도시명	인재양성				산학협력		사회봉사
	오픈캠퍼스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계약학과	대학 유치 및 설립	오픈랩	산학융합지구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부산	●	●	●	●	●		
대구	●	●				●	
광주·전남	●			●	●	●	
울산	●	●		●			
강원	●		●	●	●	●	●
충북	●	●			●	●	
전북	●	●		●		●	
경북	●	●	●	●		●	
경남	●		●	●	●		
제주	●				●		

출처: 혁신도시별 발전계획을 바탕으로 저자 재작성.



4. 혁신도시-지역대학 간 연계 제약요인과 정책과제

혁신도시-지역대학 연계의 제약요인과 한계

사업 추진 초기단계로 낮은 연계수준

- 혁신도시발전계획 수립을 계기로 신규로 시작된 사업들이 많고, 사업추진 초기단계에 있어 아직까지는 협력 수준이 낮음

이전 공공기관과 지역인재 양성 목적 중심의 연계에 치중

- 연계사업 대부분이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공동연구·기술이전 및 사업화 등의 산학협력 활동에 대한 지역대학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황

지역대학 교육과정·인재양성에 대한 낮은 만족도

- 지역인재 의무채용이 진행됨에 따라 지역대학 졸업생 채용이 늘어나고 있으나, 이전 공공기관에서는 지역 내 우수인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공헌사업에 대학이 참여

-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연계사업이 추진되는 경우는 대부분 이전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회공헌사업에 대학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음

혁신도시-지역대학 연계를 위한 소통창구 부재

-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상시적인 소통채널 확보와 체계적인 협업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나, 아직 기관 간 연계 활동이 초기단계로 상호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설정

혁신도시-지역대학 간 연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혁신도시-지역대학 간 연계사업 추진을 위한 로드맵 수립

- 초기단계인 연계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기에는 예산 제약이 있으므로 종합적인 사업추진 로드맵을 수립해 이전 공공기관-지자체-지역대학 간 협의를 통한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필요

혁신도시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한 지역대학 역할 제고

- 지역 내 우수인재 확보를 위한 이전 공공기관-지역대학 연계 교육과정을 개설해 이전 공공기관의 혁신역량 제고

혁신도시 특화 발전을 위한 기업과 지역대학 간 연계체계 구축

- 이전 공공기관과 입주기업의 특화발전 분야를 고려해 지역대학의 역할 인식 강화를 통한 산학협력 연계사업 구상·활성화

혁신도시-지역대학 연계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 연계사업의 효율성·효과성 증대를 위해서는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의 역할이 중요하며, 테크노파크, 창조경제혁신센터, 이전 공공기관, 지역대학 등 유관기관 간의 협업과 역할 분담체계 구축 필요

참고문헌

교육부 2018. 대학 자율성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학 재정지원사업 개편계획(안), 3월 22일, 보도자료.

국토연구원. 2019.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 세종: 국토교통부.

지역발전위원회. 2018. 문재인정부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2월 1일, 국가균형발전 비전선포식 발표자료.

혁신도시별 발전계획(부산, 대구, 광주·전남,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18. 혁신도시 발전계획. 각 지자체 발간.

※ 본 자료는 국토연구원에서 일반사업으로 수행한 '서연미, 김은란, 조은주. 2019. 지역상생발전을 위한 혁신도시-지역대학 연계 활성화 전략 연구. 세종: 국토연구원'(2019년 10월 말 발간 예정)의 내용을 수정·보완해 정리한 것임.

서연미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연구위원(ymse0@krihs.re.kr, 044-960-0215)

김은란 도시연구본부 연구위원(erkim@krihs.re.kr, 044-960-0668)

조은주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 연구원(ejcho@krihs.re.kr, 044-960-0255)

